

01 교회소식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성령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쳤던 '북미 지교회 심방 및 성령충만기도회' 등 국내외 소식.

02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바라보자

주 안에서 힘찬 믿음의 전진을 이루려면 불가능이 없는 영적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성결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03 기획특집

재앙이나 심판에도 하나님의 사랑아~

첫 사람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노아 홍수의 심판 등 재앙이나 심판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깨달아 본다.

04 북미 지교회 간증

“손수건 기도로 치료받았어요”

난청, 심장병을 치료받는 등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캐나다 캘거리, 토론토 북미 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

만민뉴스

제806호 2017년 9월 1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반짝반짝 너울너울, 잠자리가 전해 주는 하나님 은혜”



천국 소망이 넘치기에 밝고 환한 미소가 가득한 만민 성도들을 알아보는 듯, 손가락, 얼굴, 머리, 어깨 등 온몸에 친근하게 날아와 앉는 신기한 잠자리들. <2017 만민 하계수련회가 열린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북미 지교회 '심방 및 성령충만기도회'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국내외 곳곳에 세워진 지교회의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북미 지교회 심방 및 성령충만기도회'를 가졌다.

첫날인 24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만민선교센터에서 성도 만남 및 성령충만기도회가, 26일과 27일에는 캐나다 캘거리 만민교회에서 성령충만기도회와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권사취임식이 각각 있었다.

29일에는 가정에 모여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함께하던 토론토 지역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성전을 이룬 토론토 만민가정교회에서 성령충만기도회가 열렸다.

31일에는 워싱턴만민교회에서, 9월 3일에는 뉴욕인터내셔널만민교회에서 성령충만기도회가 각각 있었다.

성도들은 신앙상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참된 신앙의 길을 밝히 제시받았으며,

성령충만기도회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목사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줄 때 심장병, 이명, 난청, 기억력 감퇴, 보행 장애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4면 간증 참조).

한편, 이번 북미 선교 일정 중 기온이 조절되고 미세먼지가 사라지며, 각종 희한한 무지개가 출현하는 등 기사(奇事)가 많

이 나타나 선교팀과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증거들로 인해 더욱 성령 충만할 수 있었다.

멀리 떨어진 해외 지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함으로써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1~3)

저는 교회 개척 이후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온 결과, 하나님 뜻을 이루며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힘찬 믿음의 전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육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적인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믿음이라고도 하지요. 자신이 아는 지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믿는 육적인 믿음으로는 사람의 생각과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거나 이를 수도 없지요.

이와 달리 영적인 믿음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진실 자체가기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이 있으며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벼랑에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믿음

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함입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기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열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킴받았고,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 그 사이로 건너는 체험도 했습니다. 또 광야의 반석에서 솟아 나온 물을 마셨으며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요. 이 외에도 모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앞에 이르자 그 땅을 정탐한 열두 명 중 열 명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백성이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해 결국 그들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지요. 다만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민 14:7~9)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 출애굽 2세대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말이 하나님 말씀임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였지요. 출애굽 1세대는 모세의 믿음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넜지만, 출애굽 2세대는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을 때 갈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취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 행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큰 역사를 체험케 하실 때마다 먼저 성결케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데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신속히 성결을 이루고 영적인 믿음으로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라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2. 영적인 믿음은 불가능이나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기가 힘들거나 한계가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한계를 짓지도 않기에 불가능이나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본자세이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도 전혀 장애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대치하고 있었지요. 기브온에서는 다섯 나라 연합군과, 가나안 땅의 동 서편과 북방을 취할 때에는 그곳의 연합한 이방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수가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아 그만큼 세가 강했지만(수 11:4),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에게는 오직 함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행함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항상 책임져 주심으로 승리에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정녕 믿음으로 바라보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순종해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자신의 성결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고 바라봐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니 이제는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자녀로 나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심비에 새겨 행함으로 나타낼 때 어느 순간 깊숙이 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결에 대한 믿음을 갖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육의 모습이 발견된다 하여 낙심하며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이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비진리와 육의 마음을 발견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진리를 발견해 버릴 때 성결을 이루니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도 성결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의 흐름을 타고 어찌하던 영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성령이 도우시고 늘 깨우침을 주십니다. 스스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성결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요. 그러나 영을 사모하지도 않고 비진리가 발견되어도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거나,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저 육의 흐름을 따라 육으로 더 굳어져 갈 뿐입니다.

영적인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달아 자신의 성결도 믿음으로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재앙이나 심판에도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아시나요?



사례 1 _ 첫 사람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창세기 2~3장) 선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지혜로 참 자녀를 얻게 되는 인간 경작의 시작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가지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 “...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아담의 불순종은 루시퍼의 배신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도 아프게 하며 고통을 드리는 일이었고, 참으로 씻기 어려운 중한 죄였다. 인류에게 죄

가 들어오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살면서 죽음을 맞게 하셨다. 경작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중심에서 잘못을 깨우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창 3:21). 그들이 죄악 된 세상에서 받게 될 고통과 슬픔, 척박한 육의 환경에서 살아가며 당해야 할 고난과 수고들

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며 사랑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다. 이에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죽옷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사랑으로 품어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신 따뜻한 아버지로 가슴 깊이 간직하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범죄한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된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선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



사례 2 _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창세기 6~9장)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그 당시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 이 땅에서 더 이상 인간 경작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최후의 선택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다.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심판이 올 것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외치고 또 외치게 하시며 널리 전해질 만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 심지어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 명대로 노아와 그

의 가족과 각종 짐승들까지 방주에 탄 후에도 7일간이나 더 기다리셨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죄악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면서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리셨던 것이다. 결국 대홍수 심판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하나님의 옷자락에 ‘기대함’이란 글자로 새겨졌다. 여기에는 ‘다시 기대하며 기다리겠고, 반드시 이를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일은 인생들의 악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임했고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며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해 언약하셨다(창 9:8~17). 그 결과 노아의 후손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출애굽 지도자 모세,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 등이 나왔고, 다윗의 뿌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례 3 _ 소돔, 고모라에 내린 불의 심판 (창세기 18~19장) 기회를 주고 또 주어서라도 어찌하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살릴만한 일말(一拂)의 가능성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지 살피시고자 친히 두 천사장을 대동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죄악이 심히 중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큰 성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사람이 열 명도 없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릴만한 사람으로, 열 명만 있어도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간구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과 그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기회를 주고 또 주어서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 곧 선과 사랑의 마음이다. 따라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 사건에는 어찌하든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담겨 있다.



사례 4 _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에게 임한 심판 (민수기 16장) 죄악을 차단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과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중, 고라와 다단, 아비람 등이 족장 250인과 함께 무리를 지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자 그들을 땅이 삼키고 불이 소멸하는 심판이 임했다.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을 뿐 아니라 세력을 규합하여 수많은 백성까지 사망의 길로 가도록 반역을 도모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다를 바 없었고, 만일 이들을 그냥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 가운데 그들의 악에 합당한 보응을 내리심으로써 나머지 백성까지 자칫 잘못

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단이 필요하셨던 것이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정도를 넘은 적이 여러 번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 그런데 또다시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나머지 백성까지 하나님 앞에 심히도 큰 죄를 쌓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백성 전체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도록 간청하여 결국 고라와 그에게 동조한 일당들만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지만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

들에게는 계속 레위 족속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백성 전체를 생각할 때 고라와 그 일당들을 심판하신 이 일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선한 일이 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온 백성에게 경계로 삼으심으로써 이후에 싹쓸 수 있는 죄악을 미리 차단하셨다. 이처럼 심판 자체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된다면, 결국은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의 마음에서 허락된 것임을 깨우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민을 만나 난청을 치료받고 참된 종의 길을 깨우셨습니다”

낸시 샬 블리자드 목사
(69세, 미국 천국의 소망 교회 담임)

2년 전, TV에서 기독교 채널을 찾아 돌리다가 GCN 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전파되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함과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의로움과 죄에 대해 대담히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쳤고,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천국』을 읽은 뒤에는 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는 참된 종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저는 메니에르 병으로 인한 난청이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잘 안 들렸습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더 크게 말해 달라고 부탁해야 했고, 전화기로 통화할 때에는 스피커 상태로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캘리포니아만민선교센터에서 열린 ‘성령충만기도회’ 때 감사 이희선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신 뒤 갑자기 양쪽 귀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치료된 것입니다. 이제는 대화할 때 소리가 잘 들리고 더 이상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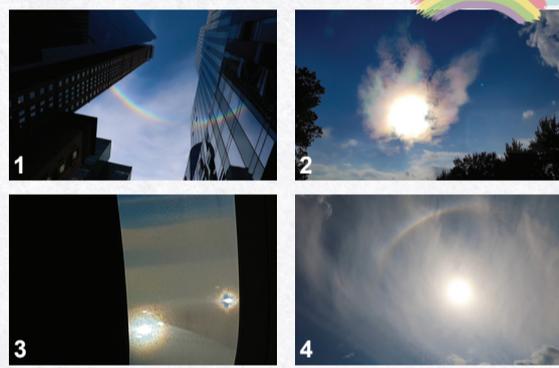
만일 제가 양쪽 귀에 보청기를 하고 사역했다면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치료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 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억력 감퇴로 고통받았는데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루이스 성도
(44세,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2014년, 엔라세(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를 통해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매우 감동스러웠고, 특히 ‘십자가의 도’와 ‘믿음의 분량’, ‘사랑장’, ‘선’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저와 아내는 2015년에 인터넷으로 등록하여 만민의 양 떼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워싱턴만민교회에서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을 감사로 ‘성령충만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부부도 사모함으로 참석하여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했지요. 더구나 저의 기억력 감퇴 증상이 개선되었으며, 아내 제시카도 스트레스와 깊은 심리적 압박감으로 힘들어했는데 하나님 사랑을 깨우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손수건 기도로 저와 어머니가 심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낸시 성도
(59세, 미국 북음주의 기독교 교회)

지난 8월 31일, 카를로스 목사님의 안내로 워싱턴 만민교회 ‘성령충만기도회’에 참석한 저는 감사 이희선 목사님에게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은 뒤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평소 저는 이명으로 인해 어지럽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으며, 심장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민찬양을 부를 때 이명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는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이명이 사라지고 잘 들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심장병이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심장병으로 입원 중이던 어머니(78세, 레이첼)도 사모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셨는데, 손수건 기도를 받으신 후 몸에 힘이 주어지면서 잘 걷고 뛰게 되었고, 계단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아래 사진). 할렐루야!

권능의 손수건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기만 합니다. 만민을 만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신 사랑의 주님께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26도의 기온, 각종 무지개 등으로 함께하신 사랑의 증거들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만민선교센터 성령충만기도회가 있었던 그 주간의 기온이 30~43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낮 최고기온은 26.2도로 시원한 날씨 속에 진행되었다.

캘리포니아만민교회가 위치한 캐나다 앨버타 주 인근에서는 최근 한 달 이상 지속된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울의 5배 이상의 면적이 태워졌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연기와 연소물 등으로 생긴 미세먼지로 두 달간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교팀이 도착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셔서 도착 당일 8월 25일에는 미세먼지 없이 맑고 쾌청한 날씨로 일정을 보낼 수 있었다.

8월 29일, 토론토만민가정교회에서 성령충만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날 일기예보는 19도의 쌀쌀한 날씨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26도 최적의 기온으로 역사해 주셨다.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하는 8월 28일, 선교팀은 비행기 날개를 두른 희한한 무지개와 원형무지개를 볼 수 있었다(사진 3, 4). 8월 30일 워싱턴만민교회로 이동할 때는 성령의 불 모양을 한 희한한 오로라 빛 무지개를 보았고(사진 2), 미국 뉴욕에 도착한 9월 1일에는 원형무지개를(사진 1) 볼 수 있었다.



출처:www.cbc.ca/news/canada



출처:YTN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반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9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